

## 주의에 대한 12 가지 명제

때로는 바람이 부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느낀다, 바람 부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태어난 가치가 있구나.

이렇게 적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떠오른 생각이니 좋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I. 물체와 인간의 놀라운 현실, 그것이 바로 순수한 주의(主意)\*의 대상이다.

II. 진정한 주의를 물체와 인간 속의 잠재성을 불러내는 일이며, 그 잠재성이 현재의 시간으로 발현되는 틈이다. 잘 정돈된 집의 문이 열리고 닫히며 들고나는 과정을 관리하듯, '그저 그대로' 기울이는 일상적인 주의를 유용함을 바탕으로 한다. 반면 희석되지 않은 순수한 주의를 유용하지 않은 것들, 아직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들, 지식이나 이득을 보장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 있다. 순수한 주의를 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벽을 뚫고 걸어 나간다.

III. 대상에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타자의 존재가 왜곡 없이 드러난다.

IV. 진정한 주의를 인간 사이의 관계와 조우에 내재된 잠재성을 꽃피운다. 이러한 잠재성은 일상의 무게에 의해, 무엇이 존재하고 관심을 받아 마땅할지 결정하는 헤게모니에 의해 억눌려 왔다.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인간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공존의 잠재적 양상에 방해 없이 양분을 주는 일이다.

V. '주의적 통로'는 자유로운 정신이 남긴 발자취이다. 타자의 주의적 통로를 추적하고 따라가는 것도 주의 기울이기만의 한 형태이다. 자유로운 정신이 남긴 주의적 통로를 추적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예리한 만족감 중 하나이다.

VI. 따라서 우리는 주의적 자유의 변증법을 포착해야 한다. 진정한 주의를 한 사람의 주의를 타자가 남긴 주의적 통로에 맞추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때로 주의적 자유의 부재를 자유(끝없는 권유)로 느낄 수 있고, 주의적 자유를 비자유(의도적인 굴복)로 느낄 수 있다.

VII. 이 변증법은 시장 구조와 기술에 의해 고의적으로 조작되어, 이제 진정한 주의를 실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의 주의를 그 어느때보다 더 자유로우나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완전히 억압되어 있다. 우리의 주의적 환경은 파멸을 맞이했다. 진정한 주의를 본질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

VIII. 주의의 악몽으로부터의 탈출은 일순간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은 우리가 현재 세상 속에서 주의가 생존하고 자라날 수 있는 새로운 공간과 환경을 개척하기를 요구한다. 말 그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도 있고, 우리의 내적 삶과 외적 삶 사이 관계를 보다 견고히

쌓을 수도 있다. 각자의 감각적 경험을 타자와 공유함으로써 파편화된 세계를 다시 맞추어 갈 수 있다.  
지금대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욕구하지 못하도록 계속해 방해받고 있는 세계를 말이다.

IX. 진정한 주의의 ‘안식처’들은 이미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곳들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숨어 있고, 자립적, 수용적이며, 너그럽지만 일시적인 형태이다.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따라서 그 과정 자체로 주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된다. 주의를 찾기 위한 주의 기울이기는 경건할 정도로 열정적인 기다림과 고대의 자세를 요하며, 동시에 그 기다림과 고대의 대상을 알기를 거부한다.

X. 주의의 윤리학이 필요하다. 실용적 신비주의와 유사한, 비현실적이지 않은 윤리학이다. 존재하는 것들의 놀라운 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무언가를 심판하거나 유용함을 평가하려는 대신 순수한 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옥죄이는 손(또는 눈이나 마음)에서 벗어남으로써.

XI. 진정한 주의를 삶을 배척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낸다. 그것은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를 재생시키는 폐이다. 당신을 둘러싼 공간이 숨쉬고 살아갈 만하다고 불현듯 느낀 적이 있다면, 자신 또는 주변의 누군가가 주의를 기울이거나, 수행하거나, 허락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XII. 그것은 자유와 이해의 과제이며 주의를 통해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이 일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끝-

주의의 친구들(THE FRIENDS OF ATTENTION), 2019년 8월 20-24일 첫 원고 작성

[friendsofattention@gmail.com](mailto:friendsofattention@gmail.com)

\*역자 노트: 영단어 ‘attention’의 국문 번역이다. ‘주목(注目)’에서 ‘목(目)’의 한자 유래가 시각적 의존성을 내포하고 있는 데에 반해, ‘주의(主義)’의 의로운 ‘의(義)’는 주의의 친구들이 추구하는 윤리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